

중국공산당 지도부에서 ‘핵심’의 의미와 시진핑(習近平)의 정치적 지위*

안 치 영**

목차

- I. 서론
- II.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의 제기와 의미
- III.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의 실제 적용
- IV. 시진핑의 정치적 지위
- V. 결론

I. 서론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회의(이하, 6중 전회)가 개최되었다. 회의 개최 전부터 시진핑이 ‘핵심’이라는 호칭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절대적 1인자가 되게 하여 장기집권의 길을 열게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었다.¹⁾ 또한 6중 전회의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중국공산당(이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하, 중공)의 집단지도체제를 규정한 1980년의 「당내 정치생활에 대한 약간의 준칙(關於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이하, 「준칙」)의 개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지도체제의 폐지를 의미한다는 예측도 있었다.²⁾

27일 끝난 6중 전회에서 예상대로 시진핑에게 ‘핵심’이라는 지위가 부여되었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以習近平爲核心的黨中央)’이라는 표현이 당의 공식 문건에 등장한 것이다.³⁾ 이것에 대하여 사실상 시진핑 ‘1인 통치’체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집단지도체제의 종언이며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길이 열렸다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⁴⁾

‘핵심’이라는 지위는 시진핑의 권위와 권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집단지도체제를 대체하는 1인 통치 체제의 등장이나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6중 전회에서는 그러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듯이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제도(집단지도와 업무 책임의 개인별 분권이 결합된 집단지도체제)를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불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6중 전회의 공보」

-
- 1) 시진핑이 1인 지배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중임제 관례를 폐기하고 최소한 2027년까지 또는 그 이상 총서거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Willy Lam, “Will ‘Core of the Leadership’ Xi Jinping Rule for 15 Years or More?”, China Brief(The Jamestown Foundation) Vol. 15 Iss. 5, Mar. 10, 2016, <<https://jamestown.org>>).
 - 2) 홍콩에서 출판된 황색 소식에서는 중국에서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에 따라 집단지도 체제는 물론 사실상 정국상무위원회도 폐지되었다고 하고 있다(申祖安, 『爭權：以反貪的名義』 內幕出版社, 2015). 국내 신문의 기사는 이들에 기초한 홍콩 신문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 3)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公報(2016年10月27日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通過)」, 『人民日報』 2016.10.28.
 - 4) 시진핑은 “5세대의 핵심”이 아니라 단순히 “핵심”이라고 지칭되었기 때문에, 임기나 퇴직 연령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덩샤오핑에 의한 제도적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Willy Lam, “Xi Jinping Uses New ‘Leadership Core’ Status to Boost His Faction,” China Brief(The Jamestown Foundation) Vol. 16 Iss. 17, Nov. 11, 2016<<https://jamestown.org>>).

(이하 「공보」)에서 언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새로운 상황하의 당의 정치생활에 대한 약간의 준칙(關於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이하, 「신준칙」)에서도 명문화하고 있다.⁵⁾

「공보」나 발표된 「신준칙」에서 볼 때 「준칙」의 개정은 집단지도체제의 폐지가 아니라 최고지도부에까지 만연하고 있는 중국의 엄중한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진핑의 권위의 강화는 집권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반부패투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준칙」의 발표와 반부패투쟁의 강화는 시진핑의 권위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1인 지배체제의 등장이나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이라는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아직은 서술적으로만 사용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외부에서도 언론보도 외의 분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중공지도부에서 '핵심'이라는 말의 등장과 그것의 적용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이라는 지위의 등장은 문혁 이후 중공 지도체제의 재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공에서 '핵심'이라는 지위 또는 표현의 등장 과정과 더불어 그것과 중공의 지도체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중공에서 '핵심'의 지위가 한편으로는 제도적 재구성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핵심'이라는 지위의 등장 과정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5) 위 『6中全會公報』: 『關於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2016年10月27日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通過)』, 『人民日報』 2016.10.28.

다음으로는 ‘핵심’이라는 지위가 실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대하여도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후적인 혹은 다른 맥락에서 지칭된 것이며, 시진핑과 같은 의미에서 ‘핵심’이라는 지칭은 장쩌민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핵심’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쩌민 시기의 ‘핵심’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기에는 ‘핵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핵심’ 대신 공식적인 당 직위인 ‘총서기’로 사용하여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以胡錦濤爲總書記的黨中央)”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후진타오 시기의 이러한 표현과 장쩌민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핵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기초하여 ‘핵심’으로서 시진핑의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평가하려고 한다. 시진핑은 지위는 제도와 더불어 공식적 규정과 관례화된 비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규정을 받는다. 그러한 규정과 규범은 시진핑의 권한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일정한 한계 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사용한 권위의 연장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와 관련하여 시진핑의 권한의 한계와 그것의 연장의 범위와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II.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의 제기와 의미

중국정치에서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핵심’이라는 지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계기에서 등장하며, 유사성을 갖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핵심’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0년 11월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회의이며, 현재와 같은 의미의 ‘핵심’ 즉, ‘특정인을 핵심으로 영도집체(또는 당중앙)’이라는 표현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와중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1. 1980년 후야오방(胡耀邦)에 의한 ‘핵심’의 제기

후야오방은 1980년 11월 19일 정치국회의에서 “누가 (주석을) 맡든 원로 동지들이, 특히 샤오핑(小平) 동지가 우리 당의 영도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발언한다.⁶⁾ 중국공산당은 1980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9차례에 걸친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의 주요한 의제는 11기 6중전회에 제기할 인사 문제였다. 1980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 이후 화궈펑(華國鋒)이 당 주석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속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的歷史問題的決意)』 대한 토론 과정에서 당과 정부 및 군대에서 화궈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화궈펑은 11월 10일 정치국회의에서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당내 일체의 직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⁷⁾ 그렇기 때문에 정치국회의의 인사 문제는 바로 화궈펑을 계승할 공공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였다.

후야오방의 위의 발언은 화궈펑을 대신하여 후야오방이 당 주석을 계승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었다. 후야오방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이 당의 최고지도자의 직위인 당 주석직을 승계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원로들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핵심’은 원로들과 덩샤오핑의 당내에서의 실질적 지위에 대한 서술이었다.

후야오방에 의하면, 덩샤오핑이 당 주석을 맡는 것이 마땅하지만, 덩 자

6) 胡耀邦, 『在中央政治局會議上的發言(1980年11月19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 人民出版社, 1982, p.747.

7) 『中共中央政治局會議通報(1980年12月5日中央政治局會議一致通過)』, 위 책, p. 787.

신이 그것을 맡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로들과 함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70세 이상의 원로들도 (당 주석을)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⁸⁾ 그에 따라 1904년생인 덩샤오핑이나 1905년생인 천윈(陳雲) 등 당시에 건재했던 원로들보다 10년이 젊은 1915년생인 후야오방을 당 주석으로 추천하였던 것이다.⁹⁾

그런데 당시 중공 내에서는 문혁에 대한 반성 과정에서 개인숭배와 종신제로부터 비롯된 마오쩌둥의 독단을 문혁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개인숭배의 부정과 종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¹⁰⁾ 개인숭배에 대하여는 이미 1978년의 11기 3중 전회에서 비판이 이루어졌으며, ‘개인독재에 대한 반대와 집단지도체제의 견지’를 원칙으로 하는 당 지도체제에 대한 변경이 1980년 2월의 11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준칙」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덩샤오핑의 당 주석직 사양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려로 인한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당 주석이 될 경우 종신제와 더불어 강력한 개인독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덩이 당주석이 될 경우 이미 7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경우 덩의 승계가 곧 종신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덩은 혁명 1세대 지도부의 일원으로 혁명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권위와 당과 군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8) 胡耀邦, 앞의 글, p. 746.

9) 후야오방이 당주석인 된 것은 단순히 연령 요인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후야오방은 덩샤오핑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1977년 초부터 업무를 재개하며 중앙 당교 부교장과 중공중앙조직부장으로 문혁 피해자에 대한 복권과 그것을 위한 이론적 사상적 투쟁의 전면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는 안치영,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재평가와 개혁』 창비, 2013; 조영남,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개혁과 개방』 민음사, 2016 참조.

10) 안치영,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년 이론공작회의』, 『중국현대사연구』 54집, 2012, 6, pp. 231-232.

있었다. 그러한 강자가 공식적 권위를 갖는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실질적 권위와 명목적 권위가 결합됨에 따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강력한 개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스스로의 실천을 통하여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덩샤오핑은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맡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덩 자신이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맡지 않음으로써 다른 원로들에게도 일선에서 후퇴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덩샤오핑과 같은 1세대 지도자들은 혁명과 국가건설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권위와 영향력은 명목적인 지위와는 상관없는 개인에게 고유한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직위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자였으므로, 후야오방이 이들 원로들을 '핵심'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그런데, 후야오방은 덩샤오핑을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핵심은 덩샤오핑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핵심은 덩샤오핑을 핵심 중의 핵심으로 하는 몇몇의 원로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들 원로들은 '8대 원로'로 지칭되기도 하지만,¹¹⁾ 이들 중 핵심은 덩샤오핑과 천윈의 쌍두 체제에다가 리셴넨(李先念)을 포함하는 '2.5인'이었다. 즉, 동등한 권위를 갖는 덩샤오핑과 천윈에다가 엇비슷한 리셴넨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분점 하였으며 거기에다가 몇몇 원로가 일정한 발언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덩샤오핑을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지칭하였을 지라도 이 시기는

11) 8대 원로는 덩샤오핑, 천윈, 리셴넨, 덩잉차오(鄧穎超), 양상쿤(楊尚昆), 팡진(彭眞), 왕진(王震), 보이보(薄一波) 등을 지칭한다(張良, 『中國「六四」真相』, 明鏡出版社, 2001, p. 587). 그런데 이들 외에 송런쑹(宋任窮) 등도 발언권을 가진 노인에 포함된다(楊繼繩 『改革開放年代的政治鬭爭』, 天地, 2010, p. 286).

1인체제가 아니라 ‘2.5인 체제’ 또는 ‘2.5+a체제’였다는 것을 말한다.¹²⁾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핵심’은 실질적 권력이 덩샤오핑과 원로들에게 있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표현은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었다.

2. 1989년 덩샤오핑에 의한 ‘핵심’의 제기

덩샤오핑은 1989년 톈안먼사건 와중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최소한 두 차례이상 공식적으로 핵심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1989년 5월 31일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펑(李鵬)과 야오이린(姚依林)과의 대화에서이며,¹³⁾ 두 번째는 6월 16일 장쩌민, 리펑, 차오스(喬石), 야오이린, 송펑, 리루이환(李瑞環) 등과의 대화에서 이다.¹⁴⁾

첫 번째 대화에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류샤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가 처음으로 중공의 안정되고 성숙한 영도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이 2세대이며, 새로운 3세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¹⁵⁾ 또한 새로운 지도부가 이미 만들어져 자신은 은퇴하고 간여하지 않을 것이며, 장쩌민을 핵심으로 모두가 단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¹⁶⁾

12) 양지성은 이들 노인들 중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것은 덩샤오핑과 천윈, 리셴넨이었는데, 덩샤오핑과 천윈이 합의하면 결정되며 리셴넨의 발언권이 천윈 다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원로들은 덩이나 천과 의견을 교환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덩과 천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楊繼繩, 위 책, pp. 286-7).

13) 鄧小平, 『組成一個實行改革的有希望的領導集體(1989年5月31日)』,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p. 301. 덩샤오핑과 중앙책임자 동지 두 명의 담화 요점이라는 주석이 있지만, 두 사람은 리펑과 야오이린이다(張良, 앞의 책, p. 824).

14) 鄧小平, 『第三代領導集體的當務之急(1989年6月16日)』,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p. 310. 덩샤오핑과 몇 명의 중앙 책임자 동지들과의 담화 요점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때 중앙책임자 동지들은 13기 4중전회에서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6명이었다(張良, 위 책, p. 1003).

15) 鄧小平, 『組成一個實行改革的有希望的領導集體(1989年5月31日)』, 위 책, p. 298.

16) 위 글, p. 301.

두 번째 대화에서 덩샤오핑은 어떠한 영도집단에서도 하나의 핵심이 있어야 하며 핵심이 없으면 영도가 안정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1세대 영도 집체의 핵심은 마오쩌둥이며, 2세대는 실질적으로 자신을 핵심으로 하며, 3세대 영도집체에도 반드시 하나의 핵심이 있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옹호해야 할 핵심이 바로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장쩌민 동지라고 한다.¹⁷⁾

두 대화에서 덩샤오핑이 말하고자 한 것은 첫째, 중공의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하며, 둘째, 모든 집단지도체제에는 그것의 중심의 되는 핵심이 있으며, 셋째, 3세대는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로들이 없는 중공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구상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덩샤오핑의 당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들과 같은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의 당 지도부의 체계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사상(捨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실제 역사 상 황과는 일정정도 괴리가 있는 표현을 했다.

덩샤오핑의 이 당부의 중심은 당의 구심 즉 '핵심'에 대한 강조이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의 필요성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것이었다.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면 굳이 '핵심'을 주장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집단지도체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1980년 11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준칙」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준칙」은 문혁 이후 문혁을 초래한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덩샤오핑은 그러한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세대 영도집단을 언급함으로써 심지어 마오쩌둥 시기도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가졌던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그것은 지도체제의 구심점으로서 '핵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하여 장쩌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17) 鄧小平, 「第三代領導集體的當務之急(1989年6月16日)」, p. 310.

그것을 위하여 덩샤오핑은 1세대의 ‘핵심’은 마오쩌둥이며, 2세대의 ‘핵심’은 자신이며, 3세대의 ‘핵심’은 장쩌민이라고 함으로써 장쩌민을 자신은 물론 마오쩌둥과도 병립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핵심’으로 장쩌민을 마오와 자신과 병립시킨 것은, 장쩌민이 마오쩌둥이나 자신과 같은 권위적 지도자라거나 혹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구심점으로서 권위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마오쩌둥 시대는 사실상 1인 지배체제였으며, 덩샤오핑은 제도 외적인 비공식적 권위를 통하여 ‘핵심’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장쩌민은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적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국전인 1946년 입당하기는 했지만 혁명운동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1982년 12차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중앙위원이 된 기술관료 출신으로 개인적 위신이나 권위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장쩌민은 비공식적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적 권위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오쩌둥은 물론 덩샤오핑과도 비교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자신은 물론 마오쩌둥과 병립시켜 같은 ‘핵심’이라고 칭한 것은 장쩌민이 비견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집단지도체제는 권력의 분할로 인하여 의사 결정의 지체나 지도력의 통일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심점의 필요성을 ‘핵심’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상하이시 서기로 중앙에 기반이 약했던 장쩌민이 총서기가 될 경우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기존에 중앙정치에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리펑이나 야오이린 등에 의하여 취약해 질 수 있었다.¹⁸⁾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집단지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였기 때문에 더군

18) 張良은 리펑이 야오이린과 연합하여 장쩌민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張良, 앞의 책, p. 825; 조영남, 『덩샤오핑시대의 중국』: 텐안먼사건』 민음사, 2016, p. 186).

다나 장쩌민이 취약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는 역으로 ‘핵심’이 마오쩌둥이나 자신과 같은 정치적 강자를 의미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적 제약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지도자가 절대적 권위를 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았으며 그것은 ‘핵심’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했다.

3. ‘핵심’의 이중적 의미

‘핵심’은 1980년 후야오방에 의하여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1989년 덩샤오핑이 다시 언급하였다. 후야오방의 언급은 당시의 실제 권력구조, 다시 말해서, 실권자들이 명목상의 권력을 차지하지 않아 실권자와 명목상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이중권력체제에서 실권의 소재에 대한 서술이었다. 그에 비하여 덩샤오핑의 말한 ‘핵심’은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덩샤오핑이 제기한 그것과 관련된다.

덩샤오핑이 제기한 ‘핵심’은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집단지도체제의 구심인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primus inter pares)”라는 의미가 하나라면 절대적 권력자라는 의미가 다른 하나이다. 제도적인 면에서 ‘핵심’은 집단지도체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자의 의미를 가진다. 집단지도체제는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내용은 『준칙』에 잘 설명되어 있다. 『준칙』에서는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집단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위원회의 위원과 서기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기(書記)의 독단과 가부장제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문제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이른바 집단적 지도와 개인별 책임과 권한 분산의 결합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¹⁹⁾

물론 『준칙』에서도 당위원회의 활동이나 일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서기와 제1서기와 같은 1인자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²⁰⁾ 그렇지만 『준칙』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강조와 개인독단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80년 중공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적인 정치문제는 문혁 문제에 대한 반성이었으며 마오쩌둥 개인의 독단을 문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게다가 당시에는 마오쩌둥의 계승자인 화궈펑이 당주석과, 국무원총리,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직하여 형식적으로는 당과 정부와 군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집단지도체제의 체기가 문혁에 대한 반성이라는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화궈펑체제의 해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등 이중적 목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핵심’은 집단지도체제를 전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핵심’이 그러한 의미라면, 굳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덩샤오핑이 ‘핵심’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순히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강자인 구심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과 자신을 각각 ‘핵심’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덩샤오핑은 1세대 영도집단에서 마오쩌둥이 핵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오는 영도집단 중의 1인 또는 1인자가 아니라 절대적 우위의 1인자였다. 그리고 자신도 영도집단의 일원이라기 보다는 2인 또는 2.5인 중의 1인인 정치적 강자였다. 그것은 ‘핵심’이 곧 마오나 자신과 같은 강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혁에 대한 반성이 최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력의 분산과 집단

19) 『關於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中國共產黨第11屆中央委員會第5次全體會議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 人民出版社, 1982, p.507.

20) 위 글, p. 508.

지도체제를 받아들여지게 했지만, 기실 덩샤오핑은 권력의 집중과 의사결정의 집중을 중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도자(후야오방과 자오쯔양-필자)의 변동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영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당의 영도가 시종 안정되었다.”고 했다.²¹⁾ 그것은 결국 ‘핵심’이 있어야 정치적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며, ‘핵심’은 자신과 같은 강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을 ‘핵심’이라고 한 것은 연령상 자신이 더 이상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이 없을 경우 당의 지도와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덩샤오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부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강자인 ‘핵심’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핵심’이 집단지도체제를 전제하면서도 집단지도체제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이 집단지도체제에서 의사를 조정하는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이지만 동시에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모순은 ‘핵심’의 위상과 역할이 집단지도체제에서의 조정자보다는 크지만 집단지도체제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위자보다는 작은 그 사이의 일정한 지점에 위치하는 정치적 강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핵심’의 권력과 권위는 집단지도체제의 개별 지도자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보다는 작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의 이중적 의미는 중공의 정치개혁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 개혁 과정에서도 잘 표현된다. 1982년 12차 당 대회에서 당주석제를 폐지하고 당총서기제로 대체한 것은 총서기에게 당의 대표의 역할과 더불어 집단지도체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1989년 총서기를

21) 鄧小平, 『第三代領導集體的當務之急(1989年6月16日)』, p. 310.

다시 ‘핵심’이라고 칭한 것은 총서기에게 단순한 당의 대표나 집단지도체제의 조정자의 역할 이상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한 ‘핵심’은 당의 권위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마오나 덩에 비견되는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마오와 덩은 제도적 공식적 권위와 더불어 비공식적 권위를 가졌으며 그러한 권위가 마오와 덩이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장쩌민 이후의 지도자들은 마오나 덩과 같은 비공식적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권력의 주요한 원천은 제도적 공식적 권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 권위자의 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강자가 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제도적 제약 하의 강자이지만 일정한 제약 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권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당의 구심이자 1인자인 동시에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대의 통수권자이며, 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견되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없다. 종신제 폐지와 퇴직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퇴직자에 대한 정치적 대우외²²⁾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담임 자격 변동²³⁾ 및 제도적 제약 내에서 형성한 권위의 정도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장악력 등에 따라 ‘핵심’인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은 제도적 제약에 의하여 임기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임기 이후에도 일정한 정도의 권한의 행사와 영향력의 연장이 가능한 제도적 기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

22) 퇴직 규정에는 퇴직한 원로 간부에 대한 문건 열람, 중요 보고 청취, 중요회의와 중요 정치활동 참가 등의 정치적 대우가 명기되어 있다(『中共中央關於建立老幹部退休制度的決定(中發 1982 13号)』, 中共中央組織部老幹部局 編, 『老幹部工作文件彙編 1978年-2002年』 當代中國出版社, 2002, p. 5).

23) 13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장에서 그 이전에 당장에 있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반드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자격 규정을 폐지했다.

지만 그러한 비공식적 권위는 제도적 규정과 비공식적 인적 관계망에 의하여 규정되며 제도적 권위를 뛰어 넘지는 못한다.

Ⅲ.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의 실제 적용

2016년 10월 중공 18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이 ‘핵심’으로 지칭되기 전까지 현직에서 공식적으로 ‘핵심’으로 호칭된 지도자는 장쩌민이 유일했다.²⁴⁾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으로서 장쩌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에 대비하여 장쩌민을 승계한 후진타오(胡錦濤)는 공식적인 직위인 총서기로만 호칭되고 ‘핵심’으로 불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지도부에서 ‘핵심’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장쩌민 시기의 ‘핵심’

‘핵심’으로서 장쩌민의 지위는 덩샤오핑과 원로들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1989년 톈안먼사건과 관련하여 총서기와 정치국상무위원을 포함하는 중공의 공식적 지도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1987년 13차 당 대회를 통하여 구성된 중공의 최고지도부는²⁵⁾ 자오쯔양을 총서기로 하고 리펑

24) 당의 문건에서 덩샤오핑을 ‘핵심’이라고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덩이 모든 현직에서 퇴직한 이후였다. 덩이 모든 현직에서 퇴직한 1989년 11월의 『13기 5중 전회 공보』에서 “11기 3중 전회 이후 덩샤오핑 동지가 우리 당의 제 2대 영도집단의 핵심이 되었다.”고 한 것이 최초였다(『中國共產黨第十三屆中央委員會第五次全體會議公報(中國共產黨第十三屆中央委員會第五次全體會議 1989年11月9日通過)』, 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 人民出版社, 1991, p. 677).

25) 당장의 규정상 중공의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다. 그런데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를 통하여 구성되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면 즉각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도부는 중앙위원회(1중 전회)에서 선출되

(李鵬), 차오스(喬石), 후치리(胡啓立), 야오이린(姚依林) 등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톈안먼사건으로 자오쯔양과 후치리가 실각하고 1989년 6월 13기 4중전회를 통하여 장쩌민을 총서기로 하고, 리펑, 차오스, 야오이린 외에도 송핑(宋平)과 리루이환(李瑞環)을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충원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덩샤오핑은 총서기 장쩌민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핵심’으로 부르고, 11월의 13기 5중전회에서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공식적인 직위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이양한다. 이로서 장쩌민은 화귀평 이후 처음으로 당의 최고지도자의 직위와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지도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13기 5중 전회 공보」에서 공식적으로 “장쩌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²⁶⁾ 그런데, 장쩌민이 ‘핵심’으로 지칭되었지만 실제 장쩌민의 지위는 그렇게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장쩌민을 ‘핵심’으로 칭한 실질적 ‘핵심’인 원로들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다.

1989년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핵심’으로 칭하면서 당부한 내용의 중심은 개혁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는데,²⁷⁾ 톈안먼 사건 이후 장쩌민의 정책은 덩샤오핑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과 ‘남순강화(南巡講話)’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남순의 첫 번째 도착지 우한(武漢)에서 장쩌민을 비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해 5월에는 수도강철(首都鋼鐵)을 시찰하면서 주룽지(朱鎔基)는 경제를 아는데, 주룽지에 대한 기용이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덩샤오핑이 장(江)을 주(朱)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받아

지만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가 바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의상 지도부를 당 대회에서 구성(또는 선출)한다고 표현한다.

26) 앞의 「十三屆五中全會公報」, p. 679.

27) 鄧小平, 「組成一個實行改革的有希望的領導集體(1989年5月31日)」, pp. 296-301.

들어지기도 했다.²⁸⁾ 실제 『14차 당 대회 보고』 기초팀의 구성원이 신화사(新華社) 고급기자 양지승(楊繼繩)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장쩌민도 “누가 14대 보고를 보고 하든 보고서는 잘 써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²⁹⁾ 그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장쩌민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로들 사이에 지도부 교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윈은 명시적으로 “장(쩌민)·리(핑)체제 불변”이라고 했으며, 보이보(薄一波)는 “같은 일을 세 번 이상 하면 안 되는데, 당신(덩샤오핑)은 이미 세 명(화궈핑, 후야오방, 자오쯔양)의 지도자를 교체했다.”며 반대하였다고 한다.³⁰⁾

이것은 비록 ‘핵심’이라고 일컬어 졌지만, 14차 당 대회까지 장쩌민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여전히 원로들이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원로들이 이미 너무 늙었으며 후계자를 너무 많이 교체했다는 것이었다. 14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원로들에 의한 장쩌민의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장쩌민체제는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6월 리셴넨이 사망하고, 1995년 4월 천윈이 사망했으며, 왕전(王震), 야오이린 등도 뒤이어 사망하였으며, 1997년 2월 덩샤오핑도 사망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14차 당 대회 이후가 되면 소위 2세대 지도부를 구성했던 원로들이 연령으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14차 당 대회에서는 원로들의 영향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28) 楊繼繩, 앞의 책, p. 440. 양지성은 수도강철 시찰을 4월이라고 하지만 덩샤오핑 연보에는 5월 22일로 기재하고 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鄧小平年譜 1975-1997』 下, 中央文獻出版社, 2004, p.1346).

29) 楊繼繩, 위 책, p. 441.

30) 위 책, p. 441.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중앙고문위원회의 폐지가 그것이다. 중앙고문위원회는 1982년 12차 당 대회에서 혁명원로들의 1선에서의 퇴진을 목적으로 당 대표대회 2기 또는 3기 동안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졌다.³¹⁾ 자문기구였지만 비공식적 권위와 관계망을 지닌 혁명 원로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위원회의 옥상옥으로서 기능하던 기구였다. 중앙고문위원회의 폐지는 원로들이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제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14차 당 대회 이후 장쩌민의 지위가 안정되었으며 공식적 제도적 권위가 중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장쩌민이 ‘핵심’에 부합하는 실제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생존하고 있던 원로들의 존재를 제외하고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장쩌민보다 선임자인 차오스와 리펑이 있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장악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1987년 13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상무위원 중 최고령이 70세인 야오이린이었지만,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는 1916년 생으로 76세인 류화칭(劉華淸)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한 것으로 그것을 추론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규범화되어 가던 정치국 상무위원 담임 연령 제한을 역전시키면서까지 군대에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가진 류화칭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장쩌민의 군대에 대한 취약한 장악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덩샤오핑은 14차 당 대회에서 선출한 지도부에 장쩌민의 다음 세대인 1942년생 후진타오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포함시켰다. 그것은 중공과 같이 승계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체제에서 차세대 후계자를 명확하게

31) 고문위원회는 종신제를 폐지하고 퇴직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적인 기구로서 12차 당 대회에서 만들어졌다(鄧小平, 『設顧問委員會是廢除領導職務終身制的過渡辦法(1982年7月30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 人民出版社, 1982, pp. 1708-9).

함으로써 승계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원로들이 미리 결정함으로써 '핵심'인 장쩌민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승계방식은 1985년 9월 당 대표회의 이후 중공 12기 5중 전회에서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차세대를 정치국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공의 지도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연령층으로 구성한 데서 출발한다. 12기 5중 전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에는 1929년생인 후치리를 위시하여 1928년생인 리펑과 1924년생인 차오스가 정치국 위원으로 포함되며 이들은 1987년의 13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1985년 당시에는 이들 중 후치리가 후야오방의 계승자로 여겨졌다.³²⁾ 그런데 1987년 후야오방의 실각과 1989년 톈안먼 사건 및 자오쯔양 의 실각은 원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도록 했지만 인적 교체만 있었을 뿐 14차 당 대회에서도 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14차 당 대회 이후 장쩌민의 지위는 안정화되었지만, 강자 또는 권위의 중심으로서 '핵심'의 지위는 제한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1997년 15차 당 대회가 되면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함에 따라 후(post)-덩샤오핑 시대인 명실상부한 3세대의 시대가 열린 것이 하나라면, 자신보다 연장자인 차오스가 퇴진함에 따라 정치국상무위원 선임자는 리펑만이 남겨졌으며, 류화칭의 후견 하에서 군대에 대한 장악력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원로들에 의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진타오를 교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승계할 다음 세대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소위 '상하이방' 세력을 정치국에 대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14차 당 대회 이후 15차 당 대회까지의 기

32) 1986년 봄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의 대화에서 후야오방은 자신이 총서기에서 물러나고 자오가 총서기를 맡아야 한다고 하자 자오는 자신이 후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승계할 수 없고 후치리에게 승계할 수 있다고 한다(楊繼繩, 앞의 책, p. 285). 그것은 이 시기 후치리가 차세대 계승자라는 암묵적인 합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을 통하여 장쩌민이 강자로서 ‘핵심’의 지위에 부합하는 권위와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은 처음부터 ‘핵심’으로 지칭되었으나 15차 당 대회부터 비로소 명실상부한 ‘핵심’이 되어 우월한 1인자인 정치적 강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장쩌민의 이러한 지위는 그를 상징하는 이론의 제기를 통해서도 표현되는데, 2000년 장쩌민은 이른 바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제기하며 그것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중공 당장에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삼개대표 중요사상”으로 병기된다. 장쩌민의 그러한 지위는 2002년 승계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장쩌민은 ‘핵심’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기초로 2002년 다른 당직에서는 물러나지만, 1987년 덩샤오핑의 선례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한다. 또한 당의 관례와 ‘핵심’으로서 형성한 관계망에 기초하여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후진타오 시대의 특수한 구조를 초래했다.

2. 후진타오 시대의 ‘핵심’

2002년 16차 당 대회를 통하여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장쩌민은 총서기로 선임되면서 ‘핵심’으로 일컬어지지만, 후진타오는 승계 과정에서는 물론 재임기간 중 ‘핵심’으로 불린 적이 없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후진타오가 ‘핵심’으로 지칭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그 대신 16차 당 대회부터 후진타오에 대하여는 후의 공식적 직위인 총서기를 사용하여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 또는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중앙 영도집단”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핵심’은 공식적 호칭이 아니라 지위와 위상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장쩌민 시기 들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마오쩌둥은 물론 덩샤오핑의 경우도, ‘핵심’이 공식적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후적 표현이었을 뿐이었다. 1980년 후야오방은 내부적

으로 당의 권위와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1989년 덩샤오핑이 11기 3중 전회 이후 자신이 ‘핵심’이었다고 한 것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장쩌민을 위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장쩌민 시기 ‘핵심’은 장쩌민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공식적 호칭이었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기에는 총서기라는 공식적 직위는 승계를 하였지만 ‘핵심’이라는 호칭은 승계하지 않았다. 그것은 덩샤오핑이 당 주석 또는 당 총서기라는 당을 대표하는 공식적 직위를 갖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총서기 직을 물려주었지만 ‘핵심’으로서의 장쩌민의 지위는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의 말 대로 모든 영도집단에 ‘핵심’이 있어야 한다면, 후진타오체제에서도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여전히 3세대 지도핵심 장쩌민이라는 것이었다.

장쩌민은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음 세대인 우방귀(吳邦國), 자칭린(賈慶林), 황취(黃菊) 및 쑹칭홍(曾慶紅)을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³³⁾ 이들이 모두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상무위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장쩌민은 16차 당 대회 이후에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함에 따라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더구나 자신과 함께 1989년부터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1934년생으로 68세인 리루이환을 은퇴시킴으로써 현직에는 더 이상 자신에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강자가 존재하지 않았다.³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현직과 군대

33) 이들 외에도 16기, 17기 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李長春), 16기 정치국 상무위원 우관정(吳官正)도 장쩌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리루이환은 1993년부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두 번 역임했기 때문에 다른 직위로 옮기지 않는다면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리루이환의 은퇴가 무엇에 연유한 것인든 그것이 소위 ‘7상 8하’의 규정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최고지도부의 인적 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와 정치국상무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및 퇴직자들이 가진 제도적 권한 등이 장쩌민이 공식적으로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덩샤오핑의 관례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 은퇴 이후에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였지만, 장쩌민이 총서기가 된 직후 자신에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한 관례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장쩌민도 2004년 16기 4중 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후진타오에게 물려주었다. 그렇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승계 이후에도 후진타오는 ‘핵심’으로 호칭되지 않았다. 그것은 장쩌민의 승계와 후진타오의 승계 상황과 그로 인한 양자 사이의 위상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공의 최대의 과제는 안정적인 승계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이든 1989년 톈안먼사건까지는 그것이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실권자인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승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심과제였으며 그것이 장쩌민으로의 승계의 전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적 수명이 다해 가던 원로들에게는 안정된 후계체제의 형성을 위해서는 강한 구심력을 갖는 지도 핵심의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쩌민을 ‘핵심’으로 규정하고 권위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승계는 제도와 관례에 따른 승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아닌 원로들에 의해 이미 정해진 후계자에 대한 승계였다. 그런 점에서 장쩌민은 절차와 제도에 따른 승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장쩌민으로부터의 승계는 제도와 관례에 따른 불가피한 승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쩌민은 승계 과정에서 제도와 관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결과 공식적인 ‘핵심’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새로운 이중권력 상태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 덩샤오핑체제가 명목상의 권력과 실제 권력 분리된 이중권력

상태였다면,³⁵⁾ 후진타오 시기는 공식적인 권력이 우위의 권위와 권력을 갖지만 퇴직한 원로가 영향력을 분점하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은 새로운 덩샤오핑을 꿈꾸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쩌민 시대 이후 지도자들은 더 이상 혁명과 국가를 만든 원로가 아니었으며 권위의 중심과 원천이 제도와 업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와 관례에 의하여 지도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지만 그것이 공식적 제도적 권위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덩샤오핑은 자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한 제도의 ‘창조자’이지만, 장쩌민의 그러한 제도의 제약 하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장하려던 ‘제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후진타오 시기 초기에는 장쩌민이 여전히 실질적 ‘핵심’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점진적으로 장쩌민으로부터 후진타오로 권위의 중심이 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진타오도 장쩌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론인 “과학적 발전관”을 2007년 중공 당장에 삽입함으로써 중공의 지도자로서 이론적 권위를 확인했다. 그렇지만 후진타오의 영향력은 거기까지였으며 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는 없었다. 비공식적 관계망과 제도적 관례로 인한 장쩌민의 영향력 외에도 후진타오 체제에서 장쩌민 세력이 최고지도부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권위를 가진 후진타오가 권위의 중심이기는 했지만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를 뛰어넘는 강자인 ‘핵심’에는 이를 수 없었다. 특히 후진타오의 군대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1999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되고 2004년에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하였지만, 군대는 여전히 장쩌민의 세력에 의하여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004년 이후에도 중앙군사위원회는 장쩌민이 임명한 귀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의 두 부주

35) 안치영, 앞의 책, pp. 288-294.

석이 실질적으로 관할했다.

그리고 그것은 후진타오가 1인자 이기는 했지만 후진타오 시기가 “동등한 자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원형에 좀 더 가깝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식적인 1인자가 우월한 정치적 강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그것은 다시 우위의 공식적인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영향력 사이의 대립과 일정한 균형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지도자가 새로운 비공식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공식적 강자가 없거나 약화된 상태에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IV. 시진핑(習近平)의 정치적 지위

시진핑은 2007년 17차 당 대회에서 리커창과 더불어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선임됨으로써 18차 당 대회의 총서기 1순위 후보자가 되었으며,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와 더불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였다. 후진타오와는 달리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승계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의 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시진핑은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 이상의 강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권한과 지위는 개혁이후 형성된 제도적 제약과 관례, 그리고 승계 과정과 초기 조건 및 업적, 배경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도적 제약은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 및 연령규정과 같은 관례와 관련된다. 승계 과정과 초기 조건은 불완전 승계인가 완전 승계인가의 여부 그리고 전임자 또는 원로들의 영향력과 관련되며, 업적은 승계 이후의 성과와 관련된다. 그리고 배경은 시진핑의 정치 세력과 개인적 관계망 등과 관련된다.

1. 시진핑의 승계와 권위의 형성

개혁 이후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직무에 대한 승계 과정에서 위계적 간부체계에서의 단계적 승진과 임기 및 연령 요인이 규정적 역할을 한다. 이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제외한 모든 당과 국가의 직무에 적용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승진 과정에서 연속하지 않는 선에서 한 단계만을 뛰어넘을 수 있다.³⁶⁾ 또한 모든 영도 직무는 중임제가 기본적 원칙이며³⁷⁾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개혁 이후 중국에서 가장 중시한 정치체제 개혁의 임무는 안정적 승계체제의 확립이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1980년 이후 후계체제 양성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한 후계체제 양성체제에서 핵심은 각급 지도부를 중층적 연령구조로 구성하고 각 층위의 지도부에 반드시 일정 수 또는 비율의 차세대를 구성할 젊은 세대를 포함하도록 했다.³⁸⁾ 최고지도부의 승계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1985년의 후치리나 1992년 후진타오의 승진은 바로 그러한 구상의 결과였다. 후치리와 후진타오의 경우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후진타오 이후에는 1980년 만들어진

36)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2014年1月14日)』, 中共中央組織部幹部一局 編著,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學習輔導, 黨建讀物出版社, 2014, pp. 8-9.

37) 2000년대 이후에는 당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는데, 당정영도간부는 동일한 직위에서 2번의 임기에 도달하면 다시는 추천하지 않으며, 같은 층위에서 15년이 되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2006年6月10日)』, 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 外 編, 『中國共產黨黨內法規選編(2001-2007)』, 法律出版社, 2009, p. 322).

38)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도부 구성원을 후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하는 것은 1986년 중앙조직부의 문건(『中共中央組織部關於領導班子年輕化幾個問題的通知(1986年11月4日)』, 中央組織部幹部調配局 編, 『幹部管理工作文件選編』, 黨建讀物出版社, 1995, pp. 176-180)에 최초로 등장하며, 이후 1998년부터 중앙조직부는 매 5년마다 『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를 만들어 각급 지도부에 일정 수 이상의 젊은 간부가 포함되는 중층적 연령 구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014-2018年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인데, 발행소식만 보도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新華社』 <2014. 12. 24>).

후계체제 양성 체계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각 층위의 간부 구성이 중층적인 연령 체계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후계세대의 연령구성에 대한 위계적 구조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2012년 18차 당 대회이다. 18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위원 중에서 연령구성상 2022년 이후 10년 정도 정치국(상무)위원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차 당 대회에서는 14차 당 대회와는 달리 18차 당 대회에서 지도자로 선출될 후보자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물론 정치국 위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령상 이후 20년 이상 현직에 머물 수 있는 인물인 시진핑, 리커창, 보시라이 등이 중앙위원으로, 리위엔차오(李源朝), 왕양(汪洋) 등이 중앙후보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시진핑과 리커창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 17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보시라이, 리위엔차오, 왕양은 정치국위원이 되었다. 17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리커창보다 먼저 호명되었는데, 그것은 시진핑이 리커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진핑이 차기 총서기의 후보자로 여겨졌다.³⁹⁾

18차 당 대회에서의 승계는 2012년 봄에 발생한 보시라이의 낙마를 제외한다면, 17차 당 대회에서 구성된 지도부의 간부 승진 규범에 따른 승계였다. 17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중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중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지 못한 경우는 류엔둥(劉延東)과 리위엔차오, 왕양 등 3명이었다. 류엔둥의 경우 중앙통전부장과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분담해야 할 업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여성이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리위엔차오와 왕양은 중앙후보위원에서 정치국위원으로 한 단계를 뛰어넘어 승진했고,

39) Willy Wo-Lap Lam, *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 Routledge, 2015, p. 57.

연령상 차기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승진대상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으로 조정된 이후 승진 제외 대상이 되었다.

시진핑의 총서기직 승계는 사실상 2007년에 결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2007년의 결정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후진타오와는 달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승계하였다. 시진핑체제에서 리커창은 연공서열상 시진핑과 동등한 경력을 가졌지만 시진핑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진핑의 권위에 간여할 수 있는 인물이 더 이상 현직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타오와는 다른 시진핑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승계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승계와 후진타오의 승계 조건의 차이가 하나라면 제도적 요소가 다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의 승계는 장쩌민이라는 강력한 ‘핵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시진핑의 승계는 공식적 권위(후진타오)와 은퇴한 ‘핵심’(장쩌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권위인 후진타오는 ‘핵심’이 될 만큼 강력한 권위체가 될 수 없었으며, 제도적 기제를 상실한 ‘핵심’은 제한적인 비공식적 영향력만을 가진 상황에서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2002년 장쩌민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유임의 선례가 되는 1987년 덩샤오핑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유임은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중국의 지도 체제와 정치개혁의 후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23)에서 본 바와 같이 1987년 13차 당 대회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의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유임했다. 그것은 후야오방의 말대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당시의 군대 상황에서 덩샤오핑만이 쉽게 군대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⁴⁰⁾ 장쩌민은 바로 그러한 제도적 후퇴를 이용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유임한 것이었다. 후진타오가 그것을 유

임하지 않는 것은 후퇴한 규정을 개정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다른 선례를 만듦으로써 실권을 통하여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이었든 후진타오와 다른 시진핑의 완전한 승계는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강한 선임자의 부재는 제도적 권위에 기초한 현직의 권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시진핑은 홍색 강산을 수립한 원로의 자제인 소위 ‘태자당’이었다. 태자당이 반드시 하나의 세력인 것은 아닐 지라도 당과 정부와 군대 및 경제계 등에 걸쳐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한 태자당 배경은 시진핑 권위의 안정과 공고화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다.

시진핑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에는 시진핑에 대하여도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총서기라는 직위를 호칭으로 하는 “시진핑을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18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에게 장쩌민과 같은 ‘핵심’의 호칭이 부여되었다. 장쩌민은 처음부터 ‘핵심’으로 규정되고 불려 졌다면, 시진핑은 총서기로만 호칭되다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장쩌민의 ‘핵심’은 상황에 의하여 원로들에 의하여 주어진 이후 점진적으로 핵심의 권위를 획득해 갔다면, 시진핑의 경우는 자신의 업적에 의하여 ‘핵심’의 지위를 스스로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핵심’의 호칭을 갖지 못했던 후진타오와는 권력 승계의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진타오의 경우 승계 초기 ‘핵심’인 장쩌민이 여전히 건재했으며 장쩌민의 완전 퇴진 이후에도 ‘핵심’이었던 장쩌민의 영향력과 집단지도체제에서의 권력 분점으로 인하여 ‘핵심’으로 자임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하여 시진핑은, 선임자는 ‘핵심’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과거의 ‘핵심’은 영향력이 약해져

40) 陸鏗, 『大記者三章: 記者的精神與作爲』, 網路與書, 2004, p. 164.

사실상 ‘핵심’이 부재한 상황에서 승계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강력한 반부패투쟁을 전개하여 자신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취약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우월한 정치적 강자인 ‘핵심’이 될 수 있었다.

시진핑의 반부패투쟁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미증유의 것이었다. 전임과 현임을 포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당과 정부 및 군대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저우용강(周永康)과 관련자들에 대한 숙청을 통하여 정법 계통과 당과 정부에 오랜 뿌리를 가진 석유방을 처리했다. 귀보슝과 쉬차이허우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에 대한 숙청은 군대 내부 장쩌민 세력 제거를 통한 장쩌민의 영향력 약화와 시진핑의 군부에 대한 장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후진타오시기 중앙관공청 주임을 역임한 링지화(令計劃)의 숙청은 후진타오 세력의 영향력을 취약하게 했다. 그에 따라 더 이상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원로와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스스로 ‘핵심’이 될 수 있었다.

2. 시진핑의 권위와 한계

‘핵심’의 권위는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보다는 크고 절대적 권위자보다는 작은 폭넓은 범위 내에 있으며, 개혁 이후 형성된 제도와 관례에 의하여 규정을 받는다. ‘핵심’은 다른 지도자보다 우월한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도와 관례의 제약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핵심’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례는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 및 연령규정 그리고 승진체계와 후계체제양성체계 등이다.

시진핑은 ‘핵심’의 지위를 부여받아 집단지도체제 하에서의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 이상의 강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집단지도체제를 뛰어넘는 일인자 또는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집단지도체제 내의 ‘핵심’이며, 집단지도체제는 개혁시기 형성된 제도

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핵심’이 우월한 강자일지라도 집단지도체 제 자체를 뛰어 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준칙』에서 영도핵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위반할 수 없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핵심’이 우위에 있고 종합적 책임을 질지라도, 각각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도자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분권적 구조를 갖는다.

시진핑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집단지도체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직의 중임제 임기제와 그것의 당 지도자에 대한 준용 및 당 지도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규정은 시진핑의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및 국가주석의 임기가 각각 2022년과 2023년을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핵심’으로서 시진핑이 임기나 연령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⁴¹⁾ 그것은 개혁 이후 제도 개혁과 당 내부 합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주장이다. 시진핑 ‘핵심’은 중공 지도체제의 문제와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기제나 연령제한 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중공은 시진핑 ‘핵심’의 제기와 더불어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도체제 자체의 변화가 없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기제는 명문화된 규정이자 정착된 관례인데 비하여 지도부에 대한 연령규정은 임기제의 전제 하에서 작동되며 그 구체적인 적용은 일정정도는 임의성을 갖는 선례이다. 최고지도부의 담임 연령 제한을 의미하는 연령규정은 1980년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규범화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시기에 따라 일정정도 변동이 있으며, “67세 유

41) Willy Lam, op. cit., Vol. 16 Iss. 17.

입과 68세 퇴임”을 의미하는 ‘7상 8하’는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적용되고 있다. 퇴직규정은 장관급인 성부급(省部級) 간부에 대하여 65세 정년과 더불어 그것의 유연한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⁴²⁾ 그것은 연령 규정 자체는 불변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것의 구체적 적용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연령 규정의 기계적 적용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으며⁴³⁾ 최고지도부 퇴직 연령의 구체적인 적용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선례이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에서 임의성이 커질 경우 규정의 적실성 자체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의 변경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연령규정의 선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시진핑의 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핵심’으로서 시진핑의 지위는 집단지도체제 자체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를 뛰어넘는 우월한 강자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물론 장쩌민을 포함하는 ‘핵심’으로 지칭된 지도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임 후에도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영향력은 제도와 관례 및 비공식적 관계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공식적 임기 이후 시진핑 영향력의 지속과 그 정도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의 유임 문제와 후계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관련된다. 현재의 규정상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유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더구나 반부패 투쟁을 통하여 군대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영

42) 퇴직규정에서 성부급 간부의 퇴직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를 초과할 수 없지만 업무상 필요하고 건강이 허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中共中央關於建立老幹部退休制度的決定(中發 1982 13号)』, p. 4).

43)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2014-2018年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에서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한 층위별 직무 연령 체감과 연령의 일률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落實全面從嚴治黨要求建設高素質領導班子』, 『新華網(www.xinhua.org)』 2014. 12. 25).

향력이 후진타오와는 다르다는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장쩌민의 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의 선례도 있으며 후진타오의 선례가 제도의 발전과 후계체제의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장쩌민의 유임이 오히려 장쩌민의 위신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후계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간부의 승진체제와 후계체제양성체제의 규범화에 의하여 장쩌민시기 보다 선택의 여지가 훨씬 제한되어 있다. 장쩌민 시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력의 경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후진타오를 제외하면 명시적인 후계체제가 구축되지는 않았다. 후진타오 시기에도 출범 당시 최소한 정치국에는 차세대를 담임할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체제는 정치국에 자신을 승계할 세대를 포함하면서 출범하였다. 그것은 최소한 차세대를 구성할 핵심 구성원들의 후보군은 시진핑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임자들에 의하여 이미 뽑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승진 과정에서 한 단계는 건너 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과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변경은 관료 사회의 합의에 대한 파괴이다.

현재의 정치국에는 연령상 2032년까지 현직에 있을 수 있는 1960년대 생이 2인이 있으며, 2027년까지 현직에 있을 수 있는 왕양까지를 포함한다면 2022년 이후에도 유임할 수 있는 후보자가 3인이거나 있다. 그것은 후계체제의 핵심이 자신이 아닌 전임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도 주요한 권위의 원천은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관료체제 자체를 변경시킬 가능성은 적으며, 후계체제 구성에서 일정정도 자신의 세력을 충원하고 차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의 권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후계체제 양성 체제와 관료체제의 안정화, 제도화로 인하여 ‘핵심’인 시진핑의 퇴직이후 영향력은 장쩌민의 그것보다도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V. 결론

중공 지도부에서 ‘핵심’의 지위는 1989년 덩샤오핑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분권적 집단지도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권위의 중심으로서 ‘핵심’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에서 ‘핵심’은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보다는 큰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핵심’은 집단지도체제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를 초월하는 우월한 일인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의 권위는 “동등한 자 중의 일인자”보다는 강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보다는 약한 그 사이의 일정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개혁이후 중국의 지도체제와 승계가 규범화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개혁이후 중공의 정치개혁의 중심과제는 문혁을 초래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의 해소와 안정적 승계제도의 완비였다. 그것을 위하여 우선, 집단지도체제를 받아들였으며, 집단지도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단지도체제의 일인자에게 다른 구성원보다는 우월한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핵심’이 집단지도체제와 동전의 양면인 제도적 구성이라는 것을 말한다.

집단지도체제와 ‘핵심’으로 구성된 지도체제는 다시 임기제와 연령규정 등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와 관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다시 말해서, 임기와 연령제한에 의하여 주기적인 인적 교체가 제도화 규범화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집단지도체제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데, 시진핑 체제와 시진핑 ‘핵심’은 바로 그러한 제도와 규범의 산물이다. 그런데, 최고지도부에 대한 연령규정은 중국적 특징을 갖는 관례로서 그 자체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정도는 임의성을 갖는 선례로서 구체적인 적용 연령은 변경가능하다.

그와 더불어 간부들의 승진체제와 후계체제 양성체제도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요소는 ‘핵심’을 포함하는 최고지도부의 간부와 후계체제 선발 범위를 제한한다. 관료화된 위계적인 간부승진체제와 후계체제 양성체제는 후계자의 선택이 특정한 개인은 물론 특정한 세대의 지도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에 의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의 집합의 결과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핵심’조차도 자신의 후계자를 이미 정해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집단지도체제와 ‘핵심’으로 구성된 지도체제와 최고지도부까지를 포함하는 관료적 승진체제는 안정적인 승계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인 지도체제인가와 정당성을 갖는 효과적인 지도부 선발 제도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시진핑체제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기된 논의에서 평가할 때, 시진핑 ‘핵심’에 의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개혁이후 기존에 형성된 제도와 관례의 범위 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권위는 개혁이후 형성된 제도와 관례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초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의 인사 변동의 범위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공산당, 핵심, 집단지도체제, 시진핑, 승계체제

(논문투고 : 2016.12.14 / 논문심사완료 : 2016.12.23 / 논문게재 확정일 : 2016.12.24)

참고문헌

- 안치영,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년 이론공작회의』, 『중국현대사연구』 54집, 2012, 6, pp. 219-242.
- 안치영,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재평가와 개혁』 창비, 2013.
- 조영남,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개혁과 개방』 민음사, 2016.
- 조영남,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 텐안먼사건』 민음사, 2016.
- 『關於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中國共產黨第11屆中央委員會第5次全體會議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人民出版社, 1982, pp. 505-518.
- 『關於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的若干準則(2016年10月27日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通過)』, 『人民日報』 2016.10.28.
-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2014年1月14日)』, 中共中央組織部幹部一局 編著,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學習輔導』黨建讀物出版社, 2014, pp. 4-30.
- 『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2006年6月10日)』, 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外 編, 『中國共產黨黨內法規選編(2001-2007)』, 法律出版社, 2009, pp. 321-322.
- 『落實全面從嚴治黨要求建設高素質領導班子』, 『新華網(www.xinhua.org)』 2014. 12. 25.
- 『中共中央關於建立老幹部退休制度的決定(中發 1982 13号)』, 中共中央組織部老幹部局 編, 『老幹部工作文件彙編 1978年-2002年』當代中國出版社, 2002, pp. 1-10.
- 『中共中央政治局會議通報(1980年12月5日中央政治局會議一致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人民出版社,

1982, pp. 787-789.

「中共中央組織部關於領導班子年輕化幾個問題的通知(1986年11月4日)」, 中央組織部幹部調配局 編, 『幹部管理工作文件選編』 黨建讀物出版社, 1995, pp. 176-180.

「中國共產黨第十三屆中央委員會第5次全體會議公報(中國共產黨第13屆中央委員會第5次全體會議 1989年11月9日通過)」, 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中, 人民出版社, 1991, pp. 674-679.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公報(2016年10月27日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通過)」, 『人民日報』 2016.10.28.

鄧小平, 「設顧問委員會是廢除領導職務終身制的過渡辦法(1982年7月30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 人民出版社, 1982, pp. 1708-9.

鄧小平, 「第三代領導集體的當務之急(1989年6月16日)」,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pp. 309-314.

鄧小平, 「組成一個實行改革的有希望的領導集體(1989年5月31日)」,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pp. 296-301.

陸鏗, 『大記者三章: 記者的精神與作爲』 網路與書, 2004.

申祖安, 『爭權: 以反貪的名義』 內幕出版社, 2015

楊繼繩, 『改革開放年代的政治鬭爭』 天地, 2010.

張良, 『中國「六四」真相』, 明鏡出版社, 200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鄧小平年譜 1975-1997』 下, 中央文獻出版社, 2004.

胡耀邦, 「在中央政治局會議上的發言(1980年11月19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彙編』 人民出版社, 1982, pp. 735-747.

- Lam, Willy Wo-Lap, "Will 'Core of the Leadership' Xi Jinping Rule for 15 Years or More?", China Brief(The Jamestown Foundation) Vol. 15 Iss. 5, Mar 10, 2016(<https://jamestown.org>).
- Lam, Willy Wo-Lap, "Xi Jinping Uses New 'Leadership Core' Status to Boost His Faction," China Brief(The Jamestown Foundation) Vol. 16 Iss. 17, Nov. 11, 2016(<https://jamestown.org>).
- Lam, Willy Wo-Lap, 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 Routledge, 2015.

The meaning of 'leadership cor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political status of Xi Jinping(習近平)

Ahn, Chiyoung

The 'leadership core' status in the Chinese leadership was raised by Deng Xiaoping in 1989. China has transformed its leadership system into a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s a result of its reflection on the Cultural Revolution after the reform, but it has raised the 'leadership core' as the center of authority to supplement the limits of the decentralized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to a new generation. Therefore, the 'leadership core' is stronger than the "primus inter pares"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but is restricted by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tsel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d the "leadership co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designed for the dual purpose of prevention of power monopoly by individuals and efficient exercise of power. In this regard, the main direction of China's political system reform after the reform was to form a stable succession system in which periodic personnel changes are made. To this end, the CCP created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and practices such as the term limit and the age rule, and formed the promotion system and succession system of cadre including top leadership.

The succession after Jiang was made by such a system, and the

중국공산당 지도부에서 '핵심'의 의미와 시진핑(習近平)의 정치적 지위

granting of 'leadership core' status to Xi Jinping was the result of such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at reason, the political status of Xi Jinping is limited by such institutional mechanisms.

Key Words :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 Cor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Xi Jinping, Succession System